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증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대호군은 5위에 딸린 종3품직이다. 여기에서 전관천蔇串川은 살곳이 내로서 지금의 살곳이 다리가 있는 청계천과 중량천의 합류천이고 그곳에 세종이 세자 문종을 대동하고 종친 및 백관과 함께 무예를 시범케 하여 일종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그 기동훈련이 광주의 남한산성과 백악白堊 즉 경복궁 뒤 북악산 정상에서 신포를 발사하여 서로 어디까지 들리는지 시험케 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규모를 짐작케 한다. 이 훈련에서 어전에서 시범을 보이도록 선발된 6인의 특등 사수 중 으뜸으로 공이 대호군으로서 시사를 한 것이다. 이후로 공은 판사복시사와 판통례원 등을 거친 것으로 보첩에 나온다. 판사 복시사는 사복시의 판사이고 판통례원시는 통례원의 판사이다. 사복시는 나라의 수레와 말 및 마구간· 목장일을 맡은 관아로 조선초 그 으뜸 직에 2인의 판사가 있고 정3품직이었다. 공이 종3품에서 정3품으로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정3품은 상이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이고 하가 통훈대부通訓大夫 당하관이며 무관은 당상이 절충장군折衝將軍·당하가 어모장군禦侮將軍이다. 통례원은 나라의 예절과 의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판통례원사는 뒤에 좌통례左通禮로 바뀌는 그곳의 으뜸 벼슬이며 정3품관이 보임되는 문관 직이다. 공이 무관으로서 문관직의 좌통례에 보임된 것이다.

이후 세종 14년 1432년 3월 18일자 실록에 공이 병조우참의兵曹右參議가 되는 기록이 나온다.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는 관리를 전형한다고 해서 전조라 별칭했고, 각조에는 조선조초 판서 와 참판 밑에 좌우참의 2인을 두었다. 그러다가 뒤에 각조에는 참의 1인만 남게 되었는데 병조에는 참의 밑에 참지參知를 두어 2인을 유지했다. 좌참의가 위이고 우참의가 다음이니 우참의는 뒤에 참지에 해당한다. 전조의 참의는 요직이었다. 그리고 당상관 통정대부通政大夫가 아니면 안 되었으니 이때 공이 당상관으로서 요직 병조 우참의 직에 발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날 같이 인사발령이 난 것을 보면 최윤덕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고 병조참의는 박서생朴瑞生 형조참의는 황보인黃甫仁이 된다. 같은 세종 14년 1432년 6월 23일에 공은 우참의로서 왕명을 받아 중국사신 장동아張童兒 위로하기 위해 술을 가지고 아목하阿木河에 갔다. 아목하는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이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장동아도아목하張童河到兒木河 명병조참의권복命兵曹參議權復 재주과왕위在酒果往慰 복예태평관사우창성復詣太平館辭于昌盛 성왈盛曰 입경칙사인가야入境則使人可也 경외칙불가境外則不可 ; 장동아가 아목하에 도착하니 병조참의 권복에게 명하여 술과 실과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권복이 태평관으로 찾아가 하직인사를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명나라의 야인지역) 지경 안에 들어 가면 사람을 사역시킬 수 있으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하였다.

여기에서 장동아張童兒는 명나라 황제측근의 내관內官으로서 조선에 특파된 칙사勅使였다. 장동아는 이보다 8개월 앞선 세종 13년 1431년 8월 19일에 같은 내관인 창성昌盛 장정안張定安과 함께 3인이 사신오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지금의 독립문자리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그들을 맞아 황제의 칙지일 받들었다. 칙지는 장동아 등에게 중국 관군 150명을 달려 보내니 도와 조선에서 나는 해동청 (사냥매)과 황웅(갈지 개. 1년생 사냥매) 백응(깃이 흰 상 서러운 매) 도표(시라소니)를 잡아 보내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공이고 그에 대한 중국의 희사가 있어 일종의 무역거래이었으나 상국이 군사까지 거느리고 와 사냥을 해가니. 그들의 식량을 보급하고 수발해야 하는 부담이 큰 일이었다. 이러한 장동아는 사신으로 온지 석달 열흘쯤 뒤인 동년 11월 30일에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임금이 직접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나가 연회로서 전별하였다. 이렇게 돌아간 장동아는 이듬해인 세종 14년 3월 27일에 다시 해동청 등을 잡으러 백두산으로 오게 되는 기사가 우리 실록에 나타난다. 중국의 성절사聖節使로 간 전시귀가 서계한 바인데 장동하가 지금 백두산의 야인지면을 향하는데 해동청을 포획해 가려는 것이고 창성·윤봉·장정안 또한 본국을 향하는 함길도咸吉道에서 매를 포획해 가고자 하여 칙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칙사는 야인지경에서 매를 잡을 군사가 400여명인데 이들을 위한 군량을 운송할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받아본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지금 장동하가 요동에서 직접 우리의 후문에 도착하는데 거느린 군사가 400이다. 이제 반드시 군량을 운송해 주어야 되는데 함길도에서 국고로 비축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만약 다른 도에서 수송 한다면 그 폐가 말할 수 없을 터인즉 어찌 조치해야 좋겠 느냐? 고 걱정한다.

이후로 동년 4월 3일자 실록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장동아가 두목頭目 400명을 거느리고 해동청을 포획하는데 4·5·6월 석 달이 지난 후 7월부터 시작하며 너의 나라가 이를 지시하고 조달하라는 황제의 칙지가 있고. 동년 5월 29일자 실록에는 백두산 등 근처에 있는 장동아 등을 위한 군량 480석을 요동에서 운반해야 하는데 인력란이 심각해 태감 창성·윤봉과 감승 장정안에게 칙서를 주어 보내니 인력을 차출해 운량케 하라는 칙지가 나온다. 어쩌든 장동아가 이처럼 많은 무리로 백두산 근처에와 머물며 매를 잡는다고 오래 폐를 끼치니 큰 부담이었다. 그 거느린 무리가 많으면서도 조선 인력으로 운량을 하라고 하니 문제였다. 이러한 때에 공이 왕명을 받아 주과를 가지고 아목하까지 장동아를 위접慰接하러 갔다. 그런데 주과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군량을 운송할 인력도 함께 조달해야 하였다. 태평관太平館은 지금의 서울 태평로에 있던 중국 칙사를 위한 영빈관迎賓館이고 여기에 사신은 창성이 머물고 있으므로 공이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창성을 그곳으로 찾아가 왕명에 의거 아목하로 떠나게 되었음을 고하고 하직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이 하직 인사를 하니 창성이 지경에 들어 가서는 사람을 사역하는 게 가능하나 지경 밖에서는 불가하다. 한 것은 조선국경을 넘어 야인지역에 들어가서는 운송 등의 일에 그쪽 인력을 사용함이 가하나 들러 가기 전 조선지경에서는 불가하니 조선 인력을 써야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어쩌든 장동아 창성 같은 중국 사신이 와서 수개월 또는 한해 내내 머물며 매잡이 등을 하는데 이를 수발하는 것이 조선 조정으로서 여간 까다롭고 또한 역겨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공이 병조참의로서 궂은 일을 도맡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은 뒤에도 이와 관련된 일에 왕명을 받은 것으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동년 세종14년 1432년 11월 16일자 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다음호에 계속〉

愛國志士 3代 巢雲, 惺破, 淸溪 先生

애국지사 대 소운 성파 청계 선생

■ 權英坐 (巢雲 權仁圭 義士 遺族代表)

건양 二月初에 (1895) 민장군으로 하여금 원산에 왜구를 진격케 하고 이장군으로 하여금 응원케 하면서, 민장군에게 당부하여 말하기를 일이 크고 작음을 탓할 것 없이 의리에 따라 할 것이며, 사람을 쓰는 데는 반듯이 심사가 명결하고 충성스럽고 강개한 사람을 임용하며 영리만 알고 협잡한 무리는 일절 쓰지 말고, 재리는 확연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경중을 저울질하여 우열을 요량하여 사의(邪意)로 후박(厚薄)을 두지 아니한즉 모든 여유 있는 집 들이 비록 창고가 비고 쓰러져도 반듯이 원망하고 탄식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에는 무고한 사람 하나를 죽여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훈계이니 힘쓰고 힘써, 조심하여 행할 것이고. 팔도의병과 더불어 성세를 서로 의지하야 산하를 소청하고 우리 오백년 종사를 중흥하야 승평 일월(日月)를 다시 보면 어찌 만행이 아니겠습니까, 云云, 下略.

칠월에 친일 관찰사 고준식을 잡아 죽이고 그 직인을 빼서 부중에 웅거하여 격문을 반포하다. 십이월에 관찰사 서정규와 참서관 조희봉과 대장 박제범이 경군을 이끌고 와서 핍박하니 관서(關西)로 물러나다.

광무원년 정유에(1897)민장군은 삼척을 점령하여 읍을 지키고. 이장군 병체는 인제로 진격하다. 그때 편지로 이장을 격려하니, 대략 말하기를, 북진의 승전보를 밤낮으로 바라더니 이에 좌절에 기별이 있으니 하늘이 의사를 도우지 아니하여 그런 것인가? 인사가 잘못되어 그런 것인가? 책상을 치고 크게 소리치니 피눈물이 쏟아집니다.

승패는 병가의 상사니 한번 실수를 하였다고 기운을 잃지 말고 더욱 분발하야 덕으로써 인심을 무마하고 의기로써 사기를 고동시켜 후일을 든든히 하면 오늘의 한번 실패가 후일의 백전백승이 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운운(云云)하략(下略)

또 죽기를 결심한 서고문을 지어서 군중에 돌려 보이고, 효유문을 지어 관동과 관서에 선포하다.

광무 독립조서가 사방에 선포 된고로 선생이 귀가하여 광무삼년(光武三年) (1899)십일월 초육일 서거하다. 1980년8월 14일 건국훈장 국민장(제 562호)이 추서되었다.

애국지사 愛國志士 성파 권종해 惺破 權鍾海선생

공의 휘는 종해(鍾海) 자는 선명이며 성파는 호이다. 소운 선생 (인규)의 차자(次子)요 어머니는 경주김씨다, 고종(高宗)칠년 경오 유월 십육일 경포면 초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의용이 준수하고 재주와 지용이 출중하여 일직이 집에서 배우는데 학문이 우월하고 조리가 독실하였다. 고종 삼십 이년 을미(乙未)에 부친을 따라 관동 창의 도총소를 설립하야 어렵고 쉬운 것을 가리지 않고 선봉장이 되어 민장군 용호와 이장군 병채로 왜구를 추격하여 황해도 곡산까지에 이르렀고 양덕 함흥까지 추격하여 왜놈의 예봉을 꺾고 왜놈의 주구를 타격한 것이 심히 많았는데 왜가 민비를 시해한일로 열국의 대사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하고 점차 제나라로 돌아감으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위호를 황제라 하고 년호를 광무라 하야 완전이 자주독립의 뜻으로 선포하니 각 의병진영이 해체하였다. 공이 귀향하야 유림을 방문하니 그때 군수 이재화란자와 거부 이근우 조익환 등이 향교재산을 많이 깎아 먹음이 많은지라 공이 유림 대표로써 상경하여 성균관과 대동문우회에 진정 하고 평의회 및 법부에 제소하여 세 사람을 처단하셨다.

융희원년(1907년) 육월(六月)에 귀향 중 원주 진위대에 방문하여 특무대장 민긍호와 의무도총 이중희가 을사늑약과 황제를 강제 퇴위에 통분하여 지휘관 김도제를 축출하고 병기 일천팔백자루를 얻어 공이 자원 초모(招募)장이 되어 의병을 인제 전선 삼척 양양 강릉 영월 평창 등지에서 모집하니 총 팔백여 명이라.

융희이년 무신((1908)에 양양 백자동으로 진군하여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더불어 합진하니 성세가 심히 왕성하야 백담사에서 교전하여 일개 대대를 섬멸하고 사월(四月)에 양양에서 의진을 옮겨 왜군 대대(大隊)와 격전하다가 불리하였다. 동월(同月)에 왜 밀정 김성서가 왜놈에게 정보를 주어 패하여 연곡면으로 돌아오니 이로부터 세가 불리하였다.

유월에 운강이 불행의 소식에 더욱 사기가 꺾여 청학동으로 군사를 옮겨 전년에 전사한 전우 윤기영을 추도하고 운강의 의제 이윤형과 같이 정선북면 단림에 진격하여 주둔한 일병 수백명을 사살하고 또 평창 도암에서 싸워 패퇴하였다.

그때 왜놈들이 공의 집을 염탐하고 야밤에 습격하여 노모 김씨를 살해하고 차자 증수를 칼로 찔러 창자가 나오는 중상을 입히고 장남기수를 체포하여 인질을 삼고 그 집에 불을 질러 전소 시키니, 공이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讎)라 하야 죽기로 겨루어 전투를 하였으나 장평에서 대패하여 장졸이 이산하니 재기 불능이라. 이로부터 팔로를 잠행하다가 계축년(1913)년에 풍기 김백원 집에 가니 채기중, 김백원, 박상진, 정만교 등과 광복단을 조직하고 동년 칠월에 서울 사직동에 사는 이종익이 내방하야 의군부를 조직하고 유격장을 피임하고 거의를 준비하던 중 사천 장재호집에서 피체되어 이공과 더불어 사년형을 언도받고 재감 육년 후 기미년에 출옥하였으나 또 독립활동으로 강원 충북으로 잠행하며 무력으로 무력항쟁을 획책하다가 체포되어 왜놈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굽히지 않고 열열하니 그러나 그동안 행적이 드러나 무기형을 언도받고 원산감옥에 투옥되어 무한히 고문을 받으니 재감(在監)사년 만에 그 여독으로 임술 유월 구일에 원산 옥중에서 서거 순국하시다. 1977년 십이월 십삼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애국지사 愛國志士 청계 권기수선생 淸溪 權基洙先生

公의 휘는 기수요 자는 성후 호는 청계다. 청계는 그분의 별호이니 성파선생의 (鍾海) 장자다. 소운선생의 장손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니 고종 삼십일년 갑오 정월이십일일에 강릉군 경포면 초당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야 십여세에 이미 사서를 통달하고 의병에 입소하여 격문과 비밀문서를 전달하였고 십 삼세 때 원주에 민긍호 의진에 들어가 군사 모집하는데 종사하였고 십 사세 때 귀향하야 그 부친 성파 의진에 입소하여 여러번 왜병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그 본가 탈 때 체포되어 왜놈진영에 끌려가 여러 오랑캐가 칼을 빼어 백단으로 위협 공갈 구타하며 그 부친거처와 의병이 있는 곳을 물었으나 조금도 겁먹지 않고 삼개월간을 유혹하여도 거절하고 불복하고 부답하였더니 역관 장석웅의 계책에 힘입어 탈출하여 고향에 돌아 왔으나 살던 집은 불타고 가족은 흩어져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사방을 주류하다가 광복단에 가입하였고 이범직을 만나 유인석의 문하생이 되었다, 그 후 유인석이 13도 의병 총재가 되자 권기수는 中軍에 머물며 조직책으로 종사하며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일제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세계열강에 발송하였으나 그 어느 방법으로도 사태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의암은 간도로 거점을 옮겼다. 서풍현(西豊縣) 흥경현(興京縣)을 거쳐 1915년 관전현(寬甸縣), 방취구(芳翠溝)에 이르러 신병으로 신음하다가 74세의 일기로 만리타국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부모같이 따르던 의암이 타계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동료 10여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려다가 일본 현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마침 그 때 일본에 스파이로 있던 김성기를 만났다. 그는 어릴적 한마을에서 같이 자라며 도움을 많이 주었음으로 김성기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그 후 겨우 가정이 안집하였으나 국치를 갚지 못하여 주야로 부심하더니 기미년 (1919년) 독립만세 때 동지 김남극과 방략을 계획하여 김남극하여금 강릉 삼척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공은 영월 평창 정선을 순회하며 크게 활약하고 이르는 곳마다 맹주로서 활약하고 앞에서 지휘하다가 체포되어 함흥감옥에 수감되어 비록 고문과 악형을 당하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굴함이 없이 추상이 열일하니 왜놈도 역시 탄복하였다. 팔년 언도를 받고 사년 후 임술년 (1923)정월구일 이십구세 청년으로 옥중에서 서거하니 슬프다 홀로 삼천리 조국 운명을 안고 부친과 조부가 적에게 항거하던 것을 이어받아 적에게 대항하다가 청춘이 옥부에서 순국하시니 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이 옷~을 적시다. 1968년 3.1절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하였다. <끝>

글로벌 금융전문가 도전해 달라고 당부한 권혁세 금감원장

"패기와 열정으로 글로벌 금융 전문가라는 꿈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MT 금융 페스티벌 2012'에 참석해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대학생들과 마주했다. 권 원장은 이날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두 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한 결과 상당수의 대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 산업은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금융 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거점 대학에서 금융현안을 토론하고 조언을 해주는 '캠퍼스 금융토크'를 진행하며 산학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금융교육을 받은 전국 40개 대학의 대학생 134명이 직접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교육 봉사단도 출범했다. 권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금융의 현실과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대학생들과 금융토크를 진행하고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동영상 공모전을 관람하며 페스티벌 행사에 함께 했다. 권 원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MT 금융 페스티벌'에서 대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용회복 등을 주제로 작품을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살아있는 금융교육을 체험하게 된다"며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인생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 조언을 듣고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8월 31일자 인용〉

권순철(權純喆)族을 도와주자

장애인의 삶에 위로받을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것. 아웃사이더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고 다짐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는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에 지난 9월3일 불행하게도 권순철 족(60才, 안동, 동정공파·37세)이 모진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書信이 本院에 전해왔다.

씨는 24년전 낙상사고로 신경을 다쳐 현재 전신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처·자식은 20년 전에 이별하고 자식은 살아있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

그는 18년 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정부보조금 64만원, 후원금 10만원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현 간병인 보호비가 월 150만원이다.

꺼져가는 한 생명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주·야간 울부짖고 있다. 이를 살리는 한모금의 生命水! 순철족에게 '빛'이 아름답게 비쳐 주었으면 합니다.

연락처 : 주소(㊣406-766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533 주공1차(아) 104동 618호 권순철

TEL : 032) 818-2397

▣ 은행구좌 : 스탠다드 차타트은행(구 제일은행) (657-20-122421)에금주 : 권순철

·동정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직원 110여명과 함께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부여군 진변리와 나복리 일대에서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의연금을 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임차관에 권택기(47) 前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서강大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권영렬(66) 화천그룹회장·본원부총재가 17일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12년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상을 수상했다.

▲권영진 前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16일 여의도 연구소 상임부소장으로 임명됐다.

▲제67회 광복절인 15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아 추모벽 제막식에 앞서 분향했다.

▲권오현 삼성전자(주) 대표 겸 부회장은 12일 중국샨시성 시안시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08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부품부문에서는 적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명예이사장은 6일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회 좋은세상 나눔이상 시상식에 참석해 안덕균 사회복지사 외 8명에게 시상했다.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6일 가수 유열씨와 배우 박해미씨를 복권기금문화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